

## 감각의 식민지에서

한유주

지난봄에 다자이 오사무를 읽었다. 읽고 짧은 글을 써야 했다. 처음에는 단편 몇 개와 장편 하나만 읽을 생각이었지만, 오랜만에 다시 대하니 새롭고도 묘한 기분이 들어 전집을 읽게 되었다. 내가 그의 소설에서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주로 감각과 죽음의 유예와 관련된 대목들이었다. 기억 속에도 “부끄럼 많은 생을 살았습니다”보다는 “죽으려고 생각했다. 올해 설날, 옷감을 한 필 받았다. 새해 선물이다. 천은 삼베였다. 쥐새끼 줄무늬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여름에 입는 거겠지. 여름까지 살아 있자고 생각했다”는 「입」의 첫 대목이 유독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더운 여름날 맨살에 닿는 삼베의 감촉, 삼베 천 사이로 들어오는 실바람. 이런 감각이 결국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건 아닐까, 나는 생각했다. 다자이의 소설들에는 요리를 먹기보다는 감상하기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비단옷을 걸치지 못해 유감스러워하거나, 계절이나 장소에 알맞은 술을 고집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나와 닮아 있었다. 요리나 옷이나 술 이야기만이 아니다. 타자를 칠 때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 펜과 종이가 마찰할 때의 소리, 단어가 단어를, 문장이 문장을 저절로 호출한다고 착각할 때의 쾌감. 그러나 감각은 찰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감각은 찰나의 순간만 충족될 수 있을 뿐이다. 그 덧없음. 무용함. 다자이의 인물들은 죽음을 유예하려고 감각에 매달린다. 그러나 작가 자신은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 간극이 아연하게 느껴졌다. 이 역시 감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짧은 글을 완성했다. 그러면서 나와 감각, 나의 감각에 대해 생각했다. 찰나의 감각은 나의 (물리적이지 않은) 죽음을 언제까지 물리칠 수 있을까.

역시 읽고 짧은 글을 써야 해서 요 며칠 페르난두 페소아 Fernando Pessoa의 『불안의 서』를 간간이 들추고 있다. 압도적인 문장들 사이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묘사를 할 때, 사람들은 느낄 때보다 우월하다. 묘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나는 묘사를 해본 적이 많지 않다. 아름다운 묘사가 이어지는 소설을 읽다 빠져들기도 하지만, 내가 묘사를 해야 할 때는 거부감이 앞선다.

나는 이번에도 폐소아의 문장을 두고 옆길로 빠지기로 한다. 내가 묘사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묘사를 하려는 시선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우월성을 갖고 싶지 않아서이다. 나는 한동안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소설가의 윤리와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전적으로 배반한다는 걸 최근 몇 년간 깨달아왔다. 내가 묘사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부를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의 이름을 갖고 싶었다. 문득 어깨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가 어깨이고 어디까지가 등이고 어디까지가 허리인지 알지 못한다. 내 어깨에는 잘못된 예방접종으로 생긴 커다란 흉터가 있다. 나는 흉터가 있는 어깨를 총칭하는 이름을 갖고 싶고,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부분, 그 부분의 부분, 또 그 부분의 부분, 그 모든 부분을 부르는 이름을 갖고 싶다. 물론 나는 일상적으로 어깨에 대해 묘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묘사할 수 없는 것, 이름 부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혹은 그 무엇도 묘사할 수 없으며 그 무엇의 이름도 부를 수 없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실재론과 유명론 사이의 논쟁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욕망이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장이 다음 문장을 저절로 불러낸다는 착각이 들 때, 나는 어디에도 없는 이름의 그림자를 훑듯 보았다고 다시 한 번 착각한다. 이러한 착각이 감각을 충족시킨다. 이 덧없음과 무용함.

언젠가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네가 쓰는 소설은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나는 알리바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알리바이: [명사] <법률> 범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현장부재증명'으로 순화. 그가 정확히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저 알리바이라는 단어를 내 식대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알리바이는 내 안에서 이렇게 굴절되었다. 나는 현장에 부재하는 이름을 증명하고 싶다. 나는 모든 사물의 이름들을, 모든 부분의 이름들을, 모든 추상의 이름들을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더는 쓸 것이 없거나, 쓰지 않아도 될 때, 소설의 없음, 문학의 없음을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감각이 충족된다면, 덧없이, 죽음이 유예되든 앞당겨지든 아무 상관도 없을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그렇듯, 이 생각 또한 잠정적이다.